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영컨설팅학과
& 지식서비스연구소

NewsLetter

Vol. 16-12

Hanyang University Consulting Newsletter

Contents

■ 학과 주요 소식

경영컨설팅학과 취업 지원 세미나(2차)
2016 서비스 운영혁신 컨설팅 사업단 비학위과정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회계투명성 비학위과정

■ 재학생 인터뷰

재학생 인터뷰-허용원, 황진

■ 컨설팅 이야기

컨설팅 이야기-최소 존속 제품(MVP)
이 달의 추천도서-미친 세일즈

■ 12월 주요 행사안내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회계투명성 비학위과정 안내
원우회 종강총회

■ 12월 일정표



발행처 :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영컨설팅학과 & 지식서비스연구소

Tel : 031-400-5036/5038 FAX : 031-400-5039

Web : <http://mc.hanyang.ac.kr> **facebook** : [facebook.com/MCHYU](https://www.facebook.com/MCHYU)

I . 학과 주요 소식

1. 경영컨설팅학과 취업 지원 세미나(2차)



11월 16일 수요일 오후 3시 경상관 531호에서 경영컨설팅학과 취업 지원 세미나(2차)가 있었습니다. 이번 취업 지원 세미나에선 경영컨설팅학과 졸업생인 이수환 선배님, 졸업생이자 박사과정으로 재학중인 김준현 선배님 두 분이 오셔서 본인들의 취업 경험담에 대해 진솔하게 말씀해주셨습니다.

취업 지원 세미나를 통해 취업과 관련하여 대학원을 다니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하고, 어떤 경험과 태도를 쌓는 것이 중요한지에 대해 알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졸업하실 4기 분들께서도 이 자리를 통해 취업과 관련해 많은 조언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담당자: 석사2기 정지수

I . 학과 주요 소식

2. 2016 서비스 운영혁신 컨설팅 사업단 비학위과정



11월 9일, 16일 2주간에 걸쳐 우리 학과 서비스운영 혁신 컨설팅 사업단에서는 ‘효과적 의사결정을 위한 시뮬레이션’을 주제로 비학위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해당 과정은 한양대학교 산업공학과 박철진 교수님께서 진행해 주셨습니다. 2주 동안 시뮬레이션의 개념, 종류, 사례, 활용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내용으로 향후 중소, 중견기업의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공유된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비학위과정은 매년 여러 사업단 주관으로 진행되며, 우리 학과 학생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참석 가능하니 향후 진행되는 비학위과정에 많은 관심과 홍보 부탁드립니다.

담당자: 박사2기 박현지

I. 학과 주요 소식

3.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회계투명성 비학위과정



11월 22일, 29일 2주간에 걸쳐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회계투명성'을 주제로 비학위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이번 비학위과정에서는 강윤식 교수님, 김영길 교수님, 설인식 교수님 총 3분이 강의를 진행 하셨습니다. 각각 '기업지배구조의 이해', '분식회계와 회계재량권', '기업의 사회적 책임, 지속가능경영'을 주제로 강연을 해주셨습니다.

본 비학위 과정의 목적인 재무 보고의 품질 개선을 위한 논의를 위해 많은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참석해 주셔서 함께 뜻 깊은 시간을 보내 었습니다.

담당자: 석사1기 김영재

I . 학과 주요 소식

3.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회계투명성 비학위과정

이번 비학위과정에 참석한 학생, 직장인분들께서 다음과 같은 소감을 전해왔습니다.

평소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 하면 조금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나누면 경제적 책임, 법적 책임, 윤리적 책임, 박애적 책임으로 분류하여 여러 관점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였습니다.

경영학부 4학년 학생

사실 회계가 무엇인지 잘 모르지만, 강의실에 사람들이 많아 무작정 들어가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학부강의에서 수강하는 회계는 계산만 반복해서 어렵고 답답했지만, 이 과정을 지나고나면 이번 특강처럼 말로써 재미있게 풀어내는 회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좋은 촉매제가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학부 2학년 학생

회계를 공부하지 않아 참석할까 고민하다가 해운업 사태를 통하여, 분식회계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라 호기심이 생겨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기업이 관습적으로 처리해온 올바른 회계처리 방법도 회계기준이 변경되어 적용되었을 때, 올바르게 못한 회계처리 방법이 되며, 그것은 더 이상 경영자의 재량적 선택이 아닌, 회계 감사를 통하여 적발되어야 할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배운 계기가 되었습니다.

경영컨설팅학과 대학원생

일을 하면서 기업이 왜 CSR을 수행하는지 막연하게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CSR은 규제, 감시단위, 세금가면, 경영성과 등 다양한 이유에서 존재한다는 것은 배울 수 있었습니다.

직장인

본 비학위과정의 마지막 강의가 12월 6일(화) 19시에 예정되어 있으니 '주요행사'란을 참고하시어 관심있으신 분들께서는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담당자: 석사1기 김영재

II. 재학생 인터뷰



석사과정 허용원

Q: 안녕하세요. 원우들에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경영컨설팅학과 석사 2기 허용원입니다. 현재 현대경제연구원 인재개발부에서 교육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주 업무는 기업의 해외 파견 근무자 등에게 필요한 글로벌 교육을 기획/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있는 조직구성원의 대부분이 교육학 관련 학위를 보유하고 있지만, 제 업무를 위해서는 기업 직원들의 니즈에 맞는 전반적인 교육과정을 기획하고 관리하기 위한 역량이 필요했기 때문에 경영컨설팅학과에서 학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Q: 1년 간 경영컨설팅학과에서 공부하면서 느끼신 점은 무엇인가요?

A: 대학원을 입학하고 아직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의 생각은 "정말 잘 한 선택이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오랜 기간은 아니지만, 약 8년 정도 기업 현장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 '**내 자신이 점점 깊은 우물에 빠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자주 들곤 했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일이나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서 새로운 방법과 지식을 활용하기 보다는 기존의 경험과 자료를 바탕으로 일을 처리하려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느낀 생각이 아닐까 합니다.

하지만 학업을 진행하면서 현재는 강의를 통해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업무에서 적용하려고 노력하는 제 자신에게 매우 뿌듯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학기 수강했던 '**컨설팅역량**'과 이번 학기 듣고 있는 '**프로젝트 관리**'의 강의 내용은 제 업무에서 언제라도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이론과 실제업무에서 활용 가능한 방법론을 제시해주고 있어서 학교를 오는 제 발걸음을 가볍게 해주고 있습니다.

수업을 통해 배웠던 여러 가지 내용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은 **문제인식의 중요성** 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기존의 업무에서는 문제인식 보다는 솔루션에 집중하려는 제 모습을 보았지만, 지금은 보다 문제인식에 집중하여 업무를 수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때론 토요일 종일 강의를 듣고 집으로 향하는 길에 '너 지금 주말마다 뭐하고 있니?' 라는 생각이 가끔 들기도 하지만, 매번 강의 시간에서 접하게 되는 새로운 지식과 원우들의 발표/질문 등을 통해 얻게 되는 간접적인 경험들은, 지금 저의 인생에 새로운 활력소로 작용하고 있고, 앞으로도 저의 인생에 소중한 기회를 제공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담당자: 석사1기 김영재

II. 재학생 인터뷰



박사과정 황진

Q: 1년 간 학업하시면서 느낀 점은 무엇인가요.

A: 군자의 3락(樂) 중에 하나가 **천하의 영재를 얻어 가르치는 즐거움**. 이라고 합니다. '나이 먹어 시작한 공부'가 교수님들께 이러한 즐거움은 커녕, 답답함을 드리지는 않을까?' 하는 노파심을 갖고 시작한지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두 번째 학기도 결승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더불어 금년도 저물어가고 있음을 보니 '참 세월이 빠르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일과 학업에 정신 없이 하루하루를 지내왔음을 온 몸으로 느낍니다.

이번 학기는 향후 논문 연구와 컨설팅 수행에 있어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여 4과목을 신청하여 수강 중에 있는데, 그 중 『회계과정과 재무제표의 이해』를 수강신청 시에는 걱정 반, 기대 반의 마음이었습니다. '회계에 대한 기초지식이 부족한 내가 과연 잘 따라갈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과 회사를 경영하는 입장에서 그리고 향후 컨설턴트로서 최소한의 회계지식은 가져야 한다는 의무감이 복합적으로 결합된 상태로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재무제표를 중심으로 이론과 실제 사례를 적절하게 활용하여 따분할 수 있는 회계강의를 흥미를 가지고 몰입하게 만드시는 김유찬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이러한 내용들을 진작 알았다면 그 동안 사업장에서 실시한 많은 점검과 컨설팅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었을 터인데' 라는 아쉬움과 함께 앞으로 컨설팅이나 회사 운영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함께 회계의 역사나 회계 기준에 대하여, 제 지식체계가 한층 풍성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기업지배구조와 관련하여 학계의 권위자들을 초빙하여 진행된 특강은 실제 자본시장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이 가져오는 문제점과 함께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기준이 필요한 이유를 실감하게 된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학기에서 제가 얻은 또 다른 기쁨은 K-MOOK를 접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 최고 권위의 교수님들이 강의를 진행하는 K-MOOK 중 가장 핫한 과목 중의 하나가 전상길 교수님의 『창조경영을 위한 인적자원관리, 길을 묻다』입니다. 컨설팅학과 전상길 교수님의 강의를 이번 학기에 수강하면서 교수님의 on-off line 강의를 동시에 듣는 행운을 갖게 되었고, 이를 통해 한 분야의 대가(大家)란 이런 수준이라는 것을 새삼 실감하고 있습니다.

경영컨설팅 학과에서 풀타임으로 또는 파트타임으로 미래의 큰 뜻을 위하여 불철주야 학구열을 불태우는 선·후배 학우님들 모두 금년 한 해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기원하며, 연말에 기회가 닿는다면 학교 앞 작은 선물집에서 술잔을 기울이며 회포를 풀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작은 소망을 빌어봅니다.

담당자: 석사1기 김영재

III. 컨설팅 이야기

1. 컨설팅 이야기 – 최소 존속 제품(MVP)

최소 존속 제품(MVP, Minimum Viable Product)은 린 스타트업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개념입니다. MVP는 린 스타트업의 핵심 프로세스인 만들기-측정-학습 순환 모델을 빠르게 돌릴 수 있도록 최소의 노력과 개발기간으로 만든 최소한의 제품 및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스타트업 생태계의 전반적인 제품 수준이 과거에 비해 현저히 높아졌기 때문에, 단순히 빠르게 MVP를 만들어 출시하는 것이 아니라 빠르면서도 완성도 높은 MVP를 만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MVP의 목적이 시장의 반응을 빠르게 살펴보고 피드백을 제품에 적용해 완성된 제품을 만드는 것인데, 타 제품에 비해 떨어지는 MVP를 출시하면 사용자들로부터 외면 받아 충분한 피드백을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담당자: 석사2기 정지수

III. 컨설팅 이야기

1. 컨설팅 이야기 – 최소 존속 제품(MVP)

그렇다면 완성도 높은 MVP를 만드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린 스타트업에 대한 개념을 확립한 에릭 리스(Eric Ries)는 최근 MVP에 대해 “MVP는 (제품이 아닌)탁월함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실험이다”라고 새롭게 소개하면서 성공적인 MVP를 만들어내는 조직을 만드는 방법 4가지를 밝혔습니다.



성공적인 MVP를 만들어내는 조직을 만드는 방법

- MVP가 무엇인지, 왜 중요한지 곱씹어보고, 만들기-측정-학습 순환의 관점에서 MVP를 바라보고 실행해야 한다.
- 리더들이 탁월함을 추구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 MVP를 통해 고객에게 가치를 제대로 전달하는 것이 각 역할별 담당자가 모인 팀의 핵심이다.
- MVP에 대한 고객 반응이 시큰둥하더라도 좌절하지 마라. 나쁜 반응은 “학습”이지 “실패”가 아니다.

에릭 리스의 말에 따라 ‘MVP는 제품이다’라는 선입견을 벗어내고 성공적인 MVP를 만들어낼 수 있는 조직을 형성한다면, 스타트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미래에 스타트업을 하고자하거나, 이미 스타트업을 시작한 사업가들에게 에릭 리스의 조언이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담당자: 석사2기 정지수

III. 컨설팅 이야기

2. 이 달의 추천도서 - 미친 세일즈



상담 1분만으로도 매출 300% 올리는

미친 세일즈

“당신의 세일즈, 무엇이 문제일까?”

아직도 발품 팔며 20세기형 세일즈를 고집하는가?

통신판매, SNS 홍보, 신규고객 1,000명 확보를

원한다면 이 책을 펼쳐라!

- 출판사 서평 中

* 저자 : 차미경 / 출판사 : 라온북

사람들은 보통 영업을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이 없어도 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하며, 단순히 상품이나 서비스를 고객에게 팔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쉽게 도전합니다. 그러나 생각과는 다르게 영업에 실패한 판매자들이 많습니다. 저자는 이를 소비자들에게 10 ~ 20년 전 방법인 ‘먹이지 않는 방법’으로 물건을 팔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실패하지 않고 성공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을까요?

이에 저자는 가족과 지인을 상대로 파는 발품영업보다는 고객들이 전략적으로 판매자를 찾아오게 만드는 영업을 해야하며,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 판매자 자신이 먼저 제품에 대해 전문가가 되어 세일즈 방식을 연구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영업은 누구나 쉽게 도전했다가 실패를 맛보기 쉬운 분야입니다. 이 책을 통하여 성공하는 영업의 실마리를 찾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자신의 사업에 맞는 차별화된 세일즈 방식을 습득하시길 바랍니다.

담당자: 석사1기 배지원

IV. 12월 주요행사 안내

1.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회계투명성 비학위과정 안내

지난달 두차례 진행되었던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회계투명성 비학위과정이 다른 내용으로 한번 더 진행됩니다. 시간이 없어 참석하시지 못했던 원우분들에게, 강의에서 유익한 정보를 얻으셨던 모든 분들께 기쁜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본 비학위과정은 재무보고의 품질 개선을 위한 체계적 논의의 토대를 제공하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아래 세부내용을 참고하셔서 비학위과정 참석을 통해 유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비학위과정 안내

- **주제** :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회계투명성
- **일시** : 12월 6일(화), 19시 시작
- **장소** : 한양대학교 ERICA Campus 경상대학 301호
- **참가대상** :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회계투명성에 관심이 있는 사람
- **강사 및 강의내용**

소속	강사	강의내용
한밭대학교	박성환 교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이해
서강대학교	강평경 교수	자본시장에서 회계정보의 역할과 중요성

담당자: 박사2기 박현지

Ⅳ. 12월 주요행사 안내

2. 원우회 종강 총회 안내

12월 10일 토요일 17시,
2016년 2학기를 마무리 하며 원우회 종강 총회를 진행합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한 학기 동안 우리 학과에 있었던 일을 되돌아 보고,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원우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원우회 종강총회 안내

- **일시** : 2016년 12월 10일 17시
- **장소** : 소담골 오리마을
- **참가대상** : 경영컨설팅학과 학생이면 누구나 참석 가능
- **장소약도**



담당자: 석사1기 배지원

V. 12월 행사표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컨설팅 대학원 2016 하반기 현장점검	6 회계투명성 비학위과정	7	8	9 지도교수 배정 마감	10 원우회 총강총회
11	12	13	14	15 논문심사결과 제출 종료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12월 주요행사

12.05(월)	컨설팅 대학원 2016 하반기 현장점검
12.06(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회계투명성 비학위과정
12.09(금)	지도교수 배정 마감
12.10(토)	원우회 총강총회
12.15(목)	논문심사결과 제출 종료
12.12(월)~12.23(금)	2학기 성적입력 및 열람

담당자: 박사2기 박현지